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한 남새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무슨 남새를 재배하는가, 통풍과 관수체계를 어떻게 세웠으며 온실남새종자보장체계가 어떻게 서있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남새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라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썩갯, 부루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야 성과를 확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당위원회를 통하여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전국



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받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부

문을, 모든 단위들에서 남새온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

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기상관측사업이 현대화, 과학화되지 못한 결과 오보가 많다고 하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하여야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일기예보에 필요한 자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들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자면 기상수문국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 교통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통보해주기 위한 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들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기상수문국의 일꾼들과 연구사, 예보원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상관측과 예보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무숲이 울창한 섬을 바라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방어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매지게 닭아

는 병영구내길을 걸으시며 휴양소에 들어서서는것만 같다고 기뻐하시였고 싱싱하게 자란 살구, 감을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훌륭히 실현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

의 전투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 때에도 늘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려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

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려도방어대는 싸움준비의 견지에서 불침점함, 군인생활의 견지에서는 나무랄데 없는 자랑할만 한 멋쟁이섬이라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려도방어대가 당중앙에서 좋다고 한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훌륭히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부대는 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

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단위,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전형단위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화국영웅인 방어대장 천재권동무와 부대정치위원에게 로령영웅칭호를 수여할것을 친히 제의하시였으며 부대정치위원에게는 현지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본사기자

6.1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열네번째 년륜이 새겨져 진다.

돌이켜보면 주제

89(2000)년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끼리 기본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서로 갈라져 대결하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준 6.15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민족의 주체적 힘, 대단결의 위력으로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받아들일수 있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분열의 어둠이 질게 드리웠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북과 남

사실 6.1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사이 대화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열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 의지,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로 닦쳐드는 전쟁위험을 막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상봉의 뜻깊은 나날들에 회담을 정력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주통

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6.15공동선언을 리행해오는 나날에 역사적인 10.4선언도 마련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실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시대를 이끌어오신것은 그이께서 려사와 민족애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함으로써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겨레의 통일운동은 련이어 집결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있다. 남조선의 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조국통

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리명박대당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실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시대를 이끌어오신것은 그이께서 려사와 민족애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이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것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이라는 려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리행하는것으로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이라는 려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가 통일의 날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으며 선언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그처럼 바라는 통일도 성취되고 평화와 번영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를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 나라의 통일은 민족중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옹호해나갈 때 실현될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 민족적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겨레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반통

일반통일전쟁세력을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굳게 련대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 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반통일파괴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 험한 가시밭길이 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있으며 장성강화된 통일애국력량이 있어 통일에국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려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승려한 베네펬우의 평원과 의지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삼천리강도 위에 통일강성국가 기어올라 건설하도록 하시려 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언명 하셨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도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올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조국통일성업 실현을 락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는 민족분열의 비극이 절제시키지 못하는 판문점의 새겨진 조국의 발자취에서 력력히 읽을수 있다. 주 체 101 (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신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시평님의 친필비를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회고 하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신

였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첩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하시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올라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도록 하시 의지를 가다듬으시었다.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올라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열렬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숭고한 인덕으로 전 민족을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이끄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시다. 세계평화연합총재 문선명 동포가 운명하였을 때 친히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평양에서 추모행사도 열도록 하신 원수님께서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금 추모의 말씀을 보내주시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했다. 사망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시다.》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다.

추억이 아름다운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추억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살려는 각오가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마다 6월이 오면 6.15시에 펼쳐진 격동과 환희의 사면들이 더욱더 되새겨지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응원단의 한 성원이 되어 부산에서 보낸 10여일간이 한생애 잊지 못할 날들로 안겨오곤 한다. 사람의 한생애는 16일간이란 어찌보면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짧은 날에 나는 삼천리강도에 맥맥히 넘쳐흐르는 민족의 넋을 보았으며 북과 남은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가슴뚝뚝이 절감하였다. 2002년 9월 우리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부산을 향해 떠났다. 부산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100여척의 배에 통일이를 띄우고 환영하는 시민운동단체성원들, 대대포항구에서 《환영 북측응원단》, 《반갑습니다》 등의 구호를 들고 우리 응원단을 열렬히 환영한 부산시민들, 만나자마자 정이 들고 한평우리가 된 남녘의 《아리랑 응원단》, 경기장마다에 메아리 친 《조국통일》, 《우리는

잊을수 없는 그날의 함성, 《우리는!》-《하나!》
 하나다》의 함성, 정말이 모든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만이 펼쳐진 있는 감동적인 화폭들이었다. 남녘인민들은 우리 응원단 성원들을 보고 《꽃미녀 응원단》이라고 하면서 경기에서 나온 선수들보다 북녘의 미녀들에게 더 관심을 쏟았다고, 모두들 예쁘고 정이 가득과 남사이의 정적경감등으로 존재하던 경계심이 순간에 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부산체류기간 있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모두 인상 깊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흥분이 그대로 느껴지는것은 10월 9일 구덕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우리 선수들과 남조선팀과의 여자축경기였다. 북남축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에는 우리 응원단, 선수단 360여명과 《한겨레남북공동응원단》 1000여명을 포함하여 2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수천명의 군중들이 손에손에 든 통일기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글을 새긴 응원소도구를 흔들면서 경기시작전부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기는 북과 남의 여자축구선수들사이의 경기였지만

시 6월에 부르는 노래
 김 영 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 영상 해마다 6월이 오면 더욱더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승엽한 영상이며
 어이 잊을수 있리라 남측의 사절을 맞으시러 평양비행장에 나오셨던 장군님모습 감격과 격동의 6.15시대 그 시대의 첫 자욱을 제시여 겨레의 가슴을 울려주시던 장군님 모습
 우리 민족끼리! 그 말속에 온 민족을 다 안으시며 6.15공동선언에 서명하시실 때 아, 그 모습은 정녕 겨레가 목메여 우러른 아버지의 모습
 민족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수 없다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장군님의 그리움 그 숭고한 민족애에 겨레가 터뜨린 감격의 환희 그것은 이 땅을 진감시킨 6월의 노래
 장군님 안아오신 6.15 그날의 걱정 그날의 환희는

시 말해보자 겨레여
 김 태 롱
 가슴을 터놓고 진실과 격정을 터놓을수 있는 한형제 한동포인 남녘의 겨레여 6월을 맞는 오늘 우리 말해보자 6.15, 6.15가 없이 살수 있는가
 갈라져 산 기나긴 분열세월 그 세월의 피눈물을 가져준 6.15

시 6월에 부르는 노래
 김 영 일
 줄기차게 흘러온 우리 민족끼리 시대에 힘차게 울려 퍼진 통일의 노래였다 반통일의 장벽을 보란듯이 들부시며 이 땅에 터져오른 통일진군가였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6.15를 주신 장군님을 우리가 부르던 6월의 노래 뜻과 정 하나로 합쳐 터쳐던 통일의 노래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호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거니
 6.15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울수 없듯이 6월의 진리는 어둠에 물울수 없으리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통일의 그날 그리며 겨레는 잊지 않으리라 6월의 환희 오늘도 매일도 통일의 그날까지 겨레가 부르고부르는 6월의 노래는 아, 장군님 못 잊는 흥모의 노래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의 노래

시 통일 의 아침은 밝아오리라
 김 승 립
 강산엔 신록이 짙고 산과 들엔 꽃들이 만발하건만 내 마음은 1월 눈내리던 새해의 그날에 섰노라
 잊을수 없노라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 원수님 하시던 신년사 우리 민족끼리 그 넋과 뜻으로 겨레의 가슴 불태워주던 원수님의 그 말씀들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면 우리 원수님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었으랴 우리 민족끼리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고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한겨울의 장설도 얼음장도 다 녹이는 햇빛같은 그이의 말씀 겨레는 가슴에 똑똑히 새겨안으리라
 우리 민족끼리만이 겨레가 살길이고 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것을

시 말해보자 겨레여
 김 태 롱
 겨레의 삶에 이 강도에 통일의 벽찬 희망과 감동을 주던 그것없이 그것을 잊고 우리 진정 살수 있단 말인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던 혈육의 상봉 끊어진 피줄을 이어주었다
 한 성원으로서 나라의 통일에 대해 다시금 자각하게 되고 통일을 위해 작아도 무엇이든 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이 달아오른 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최대로 악화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체제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다. 온 겨레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북과 남이 합의한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화해와 격정으로 가득찼던 6.15시대를 되찾을수 있는것이다. 12년 전 부산땅에 지켰던 민족화해와 단합의 성화가 삼천리강산에 환화산처럼 타번지게 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범한 한 녀성으로서 12년전의 감격을 소중히 안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길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는 마음뿐이다. 국립연극단 김 순 영

우리 대결의 총칼에 내맡길수 없노라
 6.15를 잃으면 영영 통일을 이룰수 없고 6.15를 지켜내지 못하면 민족은 영영 둘로 갈라져야 하거니
 숨줄같은 그 6.15를 잃고서는 겨레가 못살아 민족이 없어
 말해보자 겨레여 7천만의 힘으로 지키고 빛내야 할 6.15는 정녕 무엇이던가 아, 6.15, 6.15는 민족의 목숨이여라 민족의 소원 통일이여라
 오, 우리 민족끼리! 그 뜻을 따르고 그 넋에 살면 통일의 새날이 온다는것은 겨레의 신념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겨레의 이 신념은 우리 민족끼리를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계시어 6.15세상은 반드시 오리라 삼천리 이 강도엔 통일의 아침 밝아오리라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는 하나》를 웨치는 북과 남의 응원단



북관대첩비는 임진 조국전쟁시기 정부군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침입한 왜적을 격멸소탕하고 큰 승리를 이룩한것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이다. 북관대첩비는 높이 187cm, 너비 66cm, 두께 13cm이며 여기에 1,400여자의 글자가 새겨져있다.

정문부가 함경도 북평사(병마절도사의 보좌관격)로 있던 임진년(1592년)에 일본 침략자들은 20여만의 병력과 700여척의 함선을 끌고 불의에 우리 나라를 침공하였다. 그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의 일부는 함경도지방에까지 깊숙이 기어올랐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도란에 빠지고 흉악무도한 오랑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거대한 선혈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비참함에 참을수 없었던 정부부는 의병을 일으

북 관 대 첩 비

키고 처음으로 진행한 장평 전투에서 왜군장수 다섯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적군의 머리를 베는 전과를 올렸다.

이 승리를 계기로 7,000여 명으로 급속히 장성한 정부군의병대는 그 기세로 길주성전투, 립명전투, 쌍포전투, 단천전투에서 련전승하고 패주하는 적들을 백담령에서 격멸하는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을 함경도지방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1708년 함경도 북평사로 있던 최창대의 발기초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부군의병대가 왜군을 통쾌하게 섬멸한 길주목 립명에서 북관대첩비가 세워졌다. 비에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한 의병들

관대첩비를 군국주의 망령이 도사리고있는 야스쿠니진자의 어둡컴컴한 숲속에 숨겨놓고 1이 넘는 커다란 돌로 짓눌러놓았었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북관대첩비가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으로 립명땅에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한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2006년 3월 23일 함경북도 김책시 립명리에서는 북관대첩비를 원상대로 다시 세우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실로 북관대첩비를 다시 찾은것은 6.15시대에 우리 민족이 거둔 또 하나의 《대첩》이며 임진년의 대첩과 오늘 《대첩》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에서 겨레가 하나로 뭉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세상에 보여준 역사적장기이다.

본사기자

글자는 과학과 문화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 필수적인 수단이다.

원래 글자는 사람들이 사상, 생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인 기호로서 글말의 물질적인 수단으로 창조되었다.

글자가 창조되고 글말이 생겨남으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은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특히 글자는 과학과 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하며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어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조선인민이 창조한 세계의 자랑 《훈민정음》은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우수한 글자이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첫째, 가장 발전된 글자형태인 자모식으로 된 음운글자로 만들어져있다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근 7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있는 글자들을 유형별로 갈라 보면 크게 한자나 크레타글자, 슈메르글자와 같은 의미글자와 일본글자나 기브로스글자, 마이글자와 같은 음절글자, 조선글자와 라틴글자,

세계의 자랑 《훈민정음》

그리스글자와 같은 음운글자로 갈라볼수 있다.

음운글자는 언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한 글자로서 불과 몇십개에 달하는 글자를 가지고 수십만개에 달하는 단어를 나타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글자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글자류형이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둘째로, 글자를 만든 원리가 독특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다는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글자들 가운데 그 글자를 만든 사람들과 만든 원리가 정확히 밝혀져있는 글자는 오직 《훈민정음》 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훈민정음》은 1444년 1월(음력으로 1443년 12월)에 당시 정인지와 성삼문, 박맹문, 신숙주를 비롯한 《언문정》(조선본건왕조시기 글자를 연구한 기관)의 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에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작용원리를 본따서 만들었으며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셋째로, 글자기술화에 가장 편리한 글자이라는것이다.

우선 글자기술화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수한 글자는 글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으뜸이라고 할수 있다.

《훈민정음》은 글자의 개수가 모두 28자(그중 자음 17자, 모음 11자)밖에 안된다. 글자의 개수가 제일 적다고 하는 영어자모의 경우 비록 그것이 26자로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대글자와 소글자로 구별하여 쓰기때문에 사실상 52개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영어글자의 거의 절반밖에 안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오늘날 조선글자는 영어글자보다

다 기술화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컴퓨터건반에서 모음은 오른손으로, 자음은 왼손으로 칠수 있는 글자는 세계적으로 오직 조선글자밖에 없다.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은 그 과학성과 독창성, 합리성 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있다.

우선 언어학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자처하는 어느 한 나라의 대학이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세계의 모든 글자들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었는데 여기에서도 《훈민정음》은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유네스코가 세계 2,900여개의 언어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글자를 고르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훈민정음》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조선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은 세계에 소리가 자랑할만 한 훌륭한 글자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우철연



140여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 전시

지적제품이라고 할 때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지식재산으로서 여기에는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기술, 과학기술성, 창의고안, 기술비결 같은것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지적제품류통사업을 잘하여야 과학기술과 생산을 보다 가깝게 밀착시키고 기술창조자와 수요자들, 기관, 기업소

들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수 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총국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적제품들에 대한 보급과 교류, 류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지적제품전시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문을 열었다.

새롭게 꾸려진 지적제품전시장에서는 발명 및 특허문헌검색, 특허기술자료번역봉사, 각종 체제 및 응용소프트

트웨어와 하드웨어봉사, 과학기술자료편집(발명등록신청문건작성포함)과 복사 및 인쇄봉사, 기술자문, 법률상담 등 여러가지 형태의 기술자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지적제품류통을 위한 합의, 계약실무를 받고 등록하는 사업, 해당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 부분별 전시회, 기술발표회, 기술강습 등도 진행하고있다.

이곳 전시장에는 버모판비배판리에서 방음 및 방습효과를 높이는 데 리용하는 기공성벽돌, 살림집방수에 쓰이는 염기성방수세멘트, 소결성이 큰 제철들을 령간용접할수 있는 무니켈링간주철용접봉, 간단한 방식으로 증기생산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증기발생기를 비롯하여 나노기술 촉매형공기정화기, 직류교전압종자처리기, 나노생물성장촉진기 등 농업, 건설, 석탄, 금속, 채취,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필수품 등 여러 부문에서 선별된 14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현물을 기본으로 하고 도해판, 소개책, 특허물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전시되어있는 지적제품들은 발명하는 현실에 맞게 수요가 높은 보다 새로운 제품들로 부단히 보충갱신되게 된다.

지적제품전시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국내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류통성이 높은 발명, 특허, 과학기술성과들이 신속히 소개전되고 수요자들과 련계를 지어 주어 지적제품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보다 높여줄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새 기술의 보급과 교류, 류통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봉사로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 물고기의 흥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흥분이 안오면 오무라들어갔으면 그 물고기는 생선한것이다. 흥분이 잘그레하고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잠은 시간이 비교적 오랜것이다.

◆ 흥분이 보라색이 나고



6월의 문수물놀이장

삼천리금수강산이란 말의 유래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여기서 삼천리는 우리 나라의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로부터 최남단인 제주도의 마라도까지의 거리가 2,700여리가 된다는데서 유래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수려한 산과 넓고 비옥한 벌이 있으며 맑은 강과천과 무성한 산림이 많다.

또한 뚜렷한 4계절에 따르

◆ 조선8경 백두산, 평양, 금강산, 묘향산, 부천고원, 지리산, 해운대, 불국사

◆ 조선8승 경성의 온포, 황해남도의 몽골포, 한려수도, 부안의 변산, 부여, 가야산의 해인사계곡, 속리산, 한나산

본사기자

물고기의 신선도를 알자면

특 튀어나왔으면 속이 변질해가고있는것이다.

◆ 질이 좋은 언 물고기는 표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나며 고기와 뼈들이 갈라지지 않고 잘 붙어있다. 따뜻한 물에 녹이면 신선할 때의 외형특징들을 가지고있다. 냄새를 맡아보면 다른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녹인 후의

참말 기막차는구나, 아니, 왜 다들 쳐다보기만 하는거냐? 가서 먹으라는데.》하고 즐겁게 소리쳤다.

너도나도 온 집안이 새빨간 반찬에 제가락을 가져갔다.

《기막차지? 이 반찬 밥도 적 한가지다.》

시할아버지가 꺾꺾 웃으며 계속 말하였다.

은 마을에 돌리자구나. 《할아버님 말씀이 지당한 줄 아오이다.》

근달이 제격 응수했다.

《장손아비 대답이 저가 대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 반찬을 돌리기에 앞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하물며 잡풀에까지 이름이 붙어있거늘 기막찬 반찬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아버님께서 이름을 붙라 주시오이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맛장구를 쳤다.



《그럼 내 우리 아가의 어린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여 주겠다.》

이 반찬도 장은 장이렸다. 메주를 찜득에 담그었다가 찜물을 따라 내면 그게 바로 간장이고 간장뽕고 남은 걸 된장이라 하고 간장을 뽑지 않고 먹으면 무장이고 된장속에 깨를 치면 깨된장이요, 육불이를 넣으면 육장이라. 이 반찬은 콩이 아니고 참쌀과 고추가루로 만들었은 즉 참쌀고추장이라 함이 마땅할것이니라.》

방안이 떠나갈듯 갈채가 일었다.

《그럼 참쌀고추장을 집집들에 돌려라.》

깨끗이 차려입은 김씨네 녀인들은 참쌀고추장이 가득한 백향아리를 안고 나섰다.

그날 장씨는 허를 두르며 칭찬하는 동네아낙들에게 차근차근 참쌀고추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었다.

실날부듯 김씨네 집에서 삼시 세끼 밥상위에 새빨간 참쌀고추장이 빠지지 않았다.

새빨간 고추장으로 입맛을 돌린 시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활리로 나섰다.

사화 개성고추장 (4)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장씨는 두 늙은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 부지런히 주걱질을 하였다.

그날 밤 장씨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들수가 없었다.

《여보, 할아버님 하신 말씀 들었지? 출처가 구수하고...》

근달이 장씨의 손을 잡으며 다정스레 말했다.

《저를 위안하자고 한 말씀이시와요.》

《모르는 소리. 아, 우리 할아버님이 직방치라는걸 몰라?》

장씨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씨 저녁상에 가까스로 일어나 마주앉은 시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아이적에 솔치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걸 말해서 맛있게 잡수신 것이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창피했는지... 장씨는 밥을 태우면서까지 숙궁냥한걸 당당 만들어보지 않고서는 잠을 잘것 같지 못했다.》

《여보, 날 좀 도와주시와요.》

장씨는 용단을 내려 일어나 앉았다.

《원대?》

《실날에 색다른 반찬을 올리자고 하나이다.》

《그것때문이라면 그만두겠소. 실속없고 가난한 집안의 일을 다 맡아 언제 한번 허릴 제대로 퍼보지 못하는 당신이 그만쯤 어른공대를 했으면 만족하지 무얼 더 하라겠소?》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 우리가 온전한 손발이 없어서 량반을 보란듯이 어른공대를 하지 못했잖나이까. 우린 어떻게 하나 할아버님의 입맛을 돌려드려야 하나이다.》

근달은 그만 안해의 절절한 말에 감격하여 장씨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 생각했소. 자, 무엇이든 말만 하오.》

밤은 깊어진만 장씨와 근달은 부엌문을 꼭 닫고 소리가 날새라 잘침을 쳐서 길금가루를 뿌린 다음 한동안 절구질을 하다가 소금과 고추가루를 넣고 또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을 하면 할수록 새빨간 빛이 우리나와 떡반죽은 보다 더 먹음직스러워졌다.

《여보, 순침이 도는군. 보나마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 될거야.》

《제발 이것이 할아버님을 일으켜드릴수 있다면 한이 없겠나이이다.》

《이제 하늘이 당신 마음을 알아준다니까.》

량주는 정답게 속삭이며 새빨간 떡반죽을 하얀 백향아리에 넣고 바람이 들새라 두들정을 꼭 맞추었다.

동침만 한 횡논이 소리없이 내려앉은 실날이 왔다. 온 마을이 어른들께 세배